

지역 소식통

김제시,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현장설명회 성료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장 구수동·시흥지구와 죽산면 죽산지구의 측량결과 현장설명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시는 지적재조사측량 결과로 작성된 지적확정 예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에게 사전 통보하였고 각 필지에 대한 측량 결과에 대해 1대1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달 13~14일과 28~29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은 토지의 경계설정 방식 및 면적 증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직접 경계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5개월 농작업 마치고 출국

완주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개월의 농작업을 마치고 출국했다.

완주군은 필리핀 마나사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6월에 3차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7명이 5개월간 농작업을 마치고 최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완주군에서 필리핀 일로일로주 마나사청을 방문해 직접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

입국 후 성실하게 근로해 농가주의 만족도가 높아, 9월 2차 현지 방문해 추가 선발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유정기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농가주와 근로자 모두 사업 만족도가 높았다"며 "내년에도 내실있는 계절근로자 운영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국 산둥성 린이시 관계자와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김제시, 중국 산둥성 경제 교류 물꼬

우수 농산물·중기 제품 중국시장 진출 기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국 산둥성 린이시 관계자와 경제 교류 협력을 위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린이시와 김제시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손덕사 린이시 탄산수 당위위원회 서기, 손흥사 탄산수 상업도시 관리위원회 부주임, 관조군 산동관광그룹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제시 홍보영상 등을 소개하고, 향후 김제시-린이시 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근 k-푸드 열풍과 함께 냉동볶음밥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주)한우물과 파프리카 한류를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산을 방문했다.

린이시와 라화그룹 관계자는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김제시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정성주 시장은 "이번 간담회가 1회성 행사가 아닌 김제시와 린이시의 경제교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린이시는 산둥성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7184km로

인구는 1,100만명에 달한다. 동쪽으로는 중국 내 최대 항구도시 중 하나인 청도와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베이징과 상하이 중간에 위치한 지경학적 장점을 활용해 중국 내 3대 물류 도시로 거듭하고 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라화그룹은 린이시 4대그룹 중 하나로 이미 몇 해 전부터 수출입 플랫폼을 운영하며 과징무역을 확장하고 있다. 과징무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B2C로 판매된 제품은 관세율을 인하여 판매 방식으로 대표적인 중국 온라인 판매 방식이다.

이번 간담회로 린이시와의 경제협력을 통해 김제시의 우수 농산물과 가공제품 등 중국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국민정책 디자인단 성과공유 3년 연속 행안부 장관상

군 단위 유일... 특교세 7천만 원 확보

완주군(군수 유희태)이 국민정책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전국 군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수상과 함께 특교세 7,000만 원까지 확보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2023 국민정책디자인단 우수사례' 2차 심사에서 완주군의 '아이 더하기 행복 곱하기 프로젝트'가 행안부 장관상으로 최종 결정됐다.

아이 더하기 행복 곱하기 프로젝트는 완주군이 국민정책디자인단을 통해 출산장려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간 것으로 주민과 전문가, 공무원들이 소통 해가며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낸 것에 대해 큰 박수를 받았다.

완주군은 올해 4월, 출산장려정책 재설계를 목적으로 주민 5명과 전문가 5명, 관련 공무원 5명 등 총 15명으로



완주군이 국민정책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워크숍을 8회나 열고, 정책수요자를 수시로 만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군은 국민정책디자인단이 제안한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주민과 함께 정책을 설

계해가는 국민정책디자인단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1년도에는 봉동읍 생강골공원어르신 놀이터인 '마실 놀이터' 개소로, 2022년도에는 청소년 정책발굴로 행안부 장관상을 연속 수상했다. 올해 수상까지 더해지면서 3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김제시, 내년 3월까지 관리 강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집중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김제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생활, 수송, 산업, 공공 등 4개 부문에서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김제시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6년 33μg/m에서 22년 24μg/m로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12 ~ 3월 평균 농도가 연평균 농도 대비 30% 이상 높아 계절적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종식으로 사회 경제활동이 회복되고, 엘니노 현상으로 인한 고기압 강화로 한반도 대기 정체 빈발이 우려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해 특별 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행되는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주요 공사장 저감조치 이행 점검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관리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대응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집중관리 △미세먼지 안심센터 운영 등이다.

김제시는 이번 계절관리제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된 대기오염 전광판과 미세먼지 신호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물동량 증가와 엘니노 현상으로 기상 여건이 불리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대기환경 법규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이 기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구, 부산에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등 광역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계절관리기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제한지역에서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도 산림환경대상' 자치부분 대상

미세먼지 차단·탄소저장 숲 조성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 호평

완주군이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위원회가 주관하는 '제3회 전라북도 산림환경대상'에서 자치 부분 대상을 수상했다.

군에 따르면 산림환경대상은 산림의 환경기능을 증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데 공헌한 공로자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 운영위원회, (사)산림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산림청, 한국임우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이 후원한다.

완주군은 평소 산림 및 녹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밖에 없는 산업단지, 혁신도시 내에 미세먼지 저감 및 차단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부터 고산 하수종말처리장 일대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저장 숲 조성 1단계, 2단계 사업을 추진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로수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 진주국립박물관 견학

웅치·이치전투 기념사업회(상임대표 두세훈 변호사)가 지난 30일 임진왜란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인 진주성 전투의 현장과 진주국립박물관에 선진지견학을 진행했다.

이번 선진지견학은 웅치전투 전적지가 국가문화재로 승격돼 성역화 추진에 앞서 임진왜란 전적지 성역화 선진지라 할 수 있는 진주성과 진주국립박물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주성 전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조선군이 왜군에 맞서 싸운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호남을 지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임진왜란 3대 전투로 평가받고 있다.

진주국립박물관은 1984년 11월에 진주성내에 개관했고,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으로 3D 영화관이 설치됐고 천자총통을 비롯한 임진왜란 관련 유물이 전시돼 있다.

두세훈 상임대표는 "웅치전적지가 국가 사적지로 승격됨에 따라 전북도, 전북교육청, 완주군과 적극 협력해 웅치전투 기념관 설립과 초·중등 교과서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